

임진왜란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의미: 참전일본군 및 손실자수*

박희봉**

논문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불충분한 증거를 통해 쓰임에 따라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증거에 따른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군 합동참모본부가 1924년에 출간한 일본전사 조선역(임진왜란 편)에 기록된 일본군의 임진왜란 참전병력과 감소인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진왜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임진왜란 중 일본군은 최소 22만 4천명이 넘는 병력이 참전했고, 이들 중 약 14만명이 조선 땅에서 사망했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일본으로 후송됐다. 60%가 넘는 참전 일본군이 손실되었다. 둘째, 일본군이 임진왜란 각종 전투를 지배했던 시기는 초기 2개월뿐이었다. 셋째, 명군이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은 사실이나 명군은 일본군과 단 두 차례의 대규모 전투를 치렀을 뿐이다. 명군은 제4차 평양성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곧 이은 벽계관전투에서는 일본군에게 패배했다. 넷째, 임진왜란 각종 전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가장 많이 치른 당사자는 조선관군이다. 진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대첩 등 임진왜란 3대첩을 이끈 주역은 조선관군이었으며, 대부분의 의병 대장은 전·현직 관료였고, 전직 관료는 국왕으로부터 관직을 다시 제수 받았다.

이러한 역사 진실은 그 동안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인식이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총독부에 의한 역사왜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역력히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증거에 기초한 역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증거기반정부, 임진왜란, 참전일본군병력수, 손실병력수

* 이 논문은 2013년 행정학회 하계 추계학술발표논문집에서 발표된 “임진왜란 참전 일본군수 및 사망자수”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I. 서론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증거기반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미국 및 영국 등에서 근거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과 근거기반 보건학(evidence-based health care)에서 시작되어 활용되었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증거기반 의학, 증거기반 치의학, 증거기반 보건의료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발전시켰다(김명수, 2007). 의학 분야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개인의 의견보다 실효성이 높다는데 기인한다.

정책결정 분야에서 증거기반을 처음 강조한 곳은 2000년대 영국의 노동당정부이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의 계획과 평가로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의도이다(김한균, 2012). 한국에서는 경찰(김한균, 2012) 및 사회복지(공제순·서인혜, 2006) 분야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고, 행정학 분야에서도 근거기반 정부의 필요성이 초보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기반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정책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Sanderson, 2002; Nutley et al., 2003). 근거기반 정책결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근거기반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근거로 한 방식과 달리(Gray, 1997; Lee & Davis, 2004),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경험적 연구결과와 바탕 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Lee & Davies, 2004; Nutley et al., 2003)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Gray, 1997), 정책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진화할 수 있게 된다(윤건, 2012). 정책과정 중에 산출된 신뢰성 있는 정보나 지식이 평가를 통해 축적되고, 정부가 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이삼열 등, 2009).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자 또는 잠재적 활용자들로 하여금 초기 정책방향의 기준을 제시하여 정책문제의 속성 또는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오철호, 2008). 또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수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Campbell et al., 2007: 5).

이에 반해, 대부분의 정책실패는 정책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윤건, 2012)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정책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갈등의 소지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실제로 정부정책이나 의사결정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의 거버넌스가 위기에 직면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된 공항, 도로, 정전철 등의

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된 사례이며, 기존 사례의 객관적 데이터보다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대응한 2010년 및 2011년 구제역 의사결정은 엄청난 가축 매몰비용과 뒤늦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광우병과 FTA협상에 따른 촛불시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엄청난 국민갈등을 불러일으킨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증거에 기반한 정부(evidence-based government)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논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불충분한 증거를 통해 쓰임에 따라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인식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어떻게 진실에 접근하게 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증거에 기초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본다.

II. 새로운 증거 및 논점

1. 새로운 증거

본 연구의 새로운 증거는 1924년 일본군 합동참모본부가 출간한 일본전사 중에서 조선역(임진왜란 편)에 기록된 일본군의 임진왜란 참전 병력수와 감소인원수이다. 이 자료는 기존의 한국 역사에 이용된 바가 없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 전쟁을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기획한 작전명령서를 포함한다. 이 작전명령서에는 일본군 부대편제와 부대별 참전 일본군 장수, 그리고 장수별 병력수가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 참전 병력수와 손실병력수¹⁾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추정하였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장수별로 병력이 배치되었고, 일본군 장수는 일본에서 자신의 영지에서 병력을 모집하여 전투에 참전하기 때문에 장수별로 병력수의 변동 상황으로 참전 병력수와 병력 손실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일본전사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따라 임진왜란 이전에 참전 일본군 편제와 병력수가 장수별로 기록되어 있다. 1592년 3월 임진왜란 개전 시 1차로

1) 병력손실 현황은 일본의 참모본부가 1924년에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발간한 日本戰史 朝鮮役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일본군은 1593년 3월 20일 한양(책 원문에는 京城으로 표기) 병력수를 사열한 결과 많은 수의 병력이 전사, 병사 혹은 후송됨으로써 다수의 병력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附記, 村田書店, pp.92~95.). 그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후송에 따른 병력감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감소된 병력은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계산한다.

조선으로 출발한 장수별 병력수, 1593년 6월 조선 내 도별 주요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장수의 성명, 1593년 3월 한양성으로 후퇴한 이후 인원을 점검한 장수별 병력수, 그리고 1593년 6월 2차 진주성전투 이전 조선에 있던 전체 일본군의 장수별 병력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장수별 병력수를 시기별로 배열하면 병력의 감소와 증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일본군 총병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작전명령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인원 중 전체 또는 일부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전체 인원 중에서 어느 장수가 전투에 참전했는지를 알면 참전 병력수를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592년 3월 1차 침략부대로 편성된 부대는 모두 참전 병력수이다. 이들은 조선 8도에 나뉘어 전투를 치른 기록이 있다. 다음으로 일본전사에 조선에 주둔 또는 전투를 벌인 기록이 있는 장수의 병력은 참전 병력수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조선의 주요 도시에 주둔한 기록으로 참전 일본군을 추가시킬 수 있고, 1593년 3월과 6월에 장수별 병력을 점검한 기록에서 참전 일본군을 추가시킬 수 있다. 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인원점검 시 새로이 등장하는 장수와 병력수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참전한 것으로 보고, 남은 병력을 기준으로 평균사망률을 고려하여 참전 병력수를 추정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력수가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력수가 증가된 장수별 일본군은 추가된 인원만을 포함시키거나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장수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나 병력수를 추정하기 곤란한 인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참전 병력수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추정 자료로 삼았다.

임진왜란에서의 일본군 감소인원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를 기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수별 병력수의 손실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조선 8도 각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파견된 병력수와 임진왜란 개전 11개월 후 한양성에서 인원을 점검한 결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본군이 각도에서 사망하였는지를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도를 점령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경상도 지역에 주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본군의 병력수와 손실병력수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가 있기 전 진주성 공격을 위해 부대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장수별 병력수를 점검한 기록을 중심으로 일본군 병력손실수를 추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차 진주성전투에서 발생한 일본군 사망자 추정치를 기준으로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의 일본군 손실병력수를 추정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으로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일본군수를 바탕으로 일본군 손실병력수를 추정할 것이다. 아울러 임진왜란을 위해 준비된 일본군 모두가 참전하였다면 일본군 손실병력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추정할 것이다.

2. 논점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초기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의 핵심 지역을 점령하였다.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일본군 1군이 부산 영도에 상륙한 이후, 4월 14일 부산성, 4월 15일 동래성이 함락된 것을 시작으로 5월 3일 한양성, 6월 15일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조선의 성은 전투다운 전투를 벌이지 못하였다. 조선관군이 동원된 상주전투, 충주 탄금대전투, 임진강전투, 용인전투에서 조선군은 일본군에 일방적으로 패한 것이 사실이다. 유성룡의 『징비록』을 비롯한 많은 문헌에서는 임진왜란의 이미지를 조선조정의 갈등 및 내분, 전쟁준비 부족, 선조와 관군의 무능, 전투의 패배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임진왜란은 한국인들에게 선조를 위시한 조정과 군의 무능과 전투패배, 전투로 인한 백성들의 고생 등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과정에서 일본군의 참전 병력수가 정확하지 않다. 다수의 한국 사료에 따르면 일본군 참전 병력수를 15만 8,70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26년 일본군 합동참모본부가 임진왜란이 정당한 전쟁이었음을 전제로 기술하여 편찬한 『일본전사 조선역』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역사에 기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일본군이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 개전 초부터 참전한 일본군은 1번대에서 9번대까지 15만 8,700명이고, 규슈의 나고야성(名護屋城)에 예비군으로 준비된 병력은 10번대에서 16번대까지 11만 8,300명으로 총 28만명이 넘는다.²⁾ 일본측 기록에는 1592년 4월 1차로 1~9번대가 조선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부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 측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고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장수가 조선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다는 것과, 1593년 6월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점호기록에 나고야의 예비대에 속한 대부분의 장수의 이름과 그들이 이끌던 부대의 병력수가 기록되어 있다.³⁾

즉 일본전사에 참전한 기록이 확실한 일본군 수만을 계산할 경우, 임진왜란 초기부터 참전한 일본군은 22만 4,774명이다. 일본은 왜 이렇게 엄청난 병력을 조선에 파병했을까? 그리고 15만 여명의 본대만으로 조선 8도를 점령했다고 하면서 명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준비한 예비대의 일부를 초기부터 조선땅, 특히 경상도에 파병했을까? 이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논점이다.

1592년 4월 임진왜란 초기부터 참전한 일본군은 22만 4,774명이라고 할 때, 1년 2개월 후인

2) 일본군은 1592년 1월 5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각 지방의 제후들이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병력을 규슈지방의 나고야(名護屋) 성에 집결시켰다. 이때 제대(諸隊) 편성은 1~16번대(番隊, 각 번대병력은 4,000~24,000명 수준), 수송 및 수군(船手衆), 예비부대인 번외(番外) 2개 부대, 직속무사 부대인 하타모토(旗本) 등 281,840명으로 구성되었다(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pp. 65~73.).

3)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pp.257~262.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 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주성공격명령서 상에 기록된 공격군의 수 9만 3천명과 예비병력을 포함한 병력의 총수는 12만 여명이다. 이것을 계산하면 1592년 4월부터 1593년 6월 2차 진주성전투 이전까지 동안 일본군은 10만 명 이상이 전사하였다.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만 8,000명의 일본군을 합산하면 13만 8,086명이 감소하였고, 온전히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군 수는 8만 6,688명이다. 더욱이 나고야에 주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예비병력 모두가 참전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참전 일본군 수는 28만 6,840명이고 사망자수는 20만 152명으로 일본군은 1년 3개월 동안 참전자의 69.73%가 조선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피해만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임진왜란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본군이 사망 또는 중상으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기 이전인 1593년 1월 이전에 일본군이 조선땅에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일본군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감소되었을까? 이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이 계속 승리한 것으로 기록된 임진왜란 초기 1년 동안, 일본군의 한양성 점령 이후 조선 8도를 분할 점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 군의 지역별 감소인원수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작전명령서에는 1번대에서 9번대까지의 부대로 하여금 조선 8도를 분할 점령할 것이 나타나 있다. 일본군의 선봉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록을 남겼고, 평양까지 점령한 바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1번대는 1592년 3월 조선출병 당시 18,700명 규모였으나, 1년 후인 1593년 3월에는 6,626명만이 생존하여 사망률이 64.56%에 달하였다.⁴⁾ 또한 전투기록이 많지 않은 황해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3번대(대표장수: 구로다 나가마사 黒田長政)는 같은 기간 동안 사망률이 53.80%, 강원도에 있었던 일본군 4번대(대표장수: 모리 요시나리 毛利吉成)의 사망률은 56.35%, 충청도에 주둔했던 5번대(대표장수: 후쿠시마 마사노리 福島正則)의 사망률은 45.27%에 이른다. 또한 이들의 부대에 지속적으로 병력이 보충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조선에서 전국적으로 일본군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큰 전투가 벌어진 기록이 없는 곳에서까지 일본군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본 연구의 세 번째 논점이다.

즉 본 연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증거로 새로이 해석하려는 것이다. 일본군 참전 병력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참전한 일본군이 조선땅에서 사망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인식의

4) 『日本戰史 朝鮮役』에는 일본군 1번대의 병력수가 1593년 3월에는 6,626명이고 그해 6월 진주성 2차전투를 위한 집회에서는 7,415명으로 병력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오류와 진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Ⅲ. 일본군 편제 및 병력수

임진왜란 참전 일본군 병력수의 근거는 일본전사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전쟁준비를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획한 작전명령서에 나타난 일본군의 총수는 284,840명이다 (<표 1> 참고). 이 병력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대마도 도주 소오 요시모토(宗義智)의 5,000명이 제외되어 있기에, 5,000명을 더하면 총 289,840명이다.

<표 1> 일본군 편제 및 병력수

편제	부대	병력 수	주요 지휘관
본 대	1번대	18,700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마즈우라 시게노부(松浦鎮信),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오무라 요시하키(大村喜前), 고토 스미하루(五島純玄), 소오 요시토시(宗義智)
	2번대	22,800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나베시마 나오시게(鍋渡直茂), 사가라 요시후사(相良頼房)
	3번대	11,000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오오토모 요시무네(大友吉統)
	4번대	13,500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다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아키즈키 다네나가(秋月種長), 이토오 스케타카(伊東祐兵), 시마즈 타다토요(島津忠豊)
	5번대	12,400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도다 카즈타카(戸田勝隆), 초소카베 모토키카(長宗我部元親), 구루지마 미치후사(來島統總)
	6번대	12,700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이코마 치카마사(生駒親正)
	7번대	15,700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다치바나 무네토라(立花統虎), 다카하시 도소(高橋統增),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
	8번대	30,000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9번대	10,000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
예 비 대	10번대	17,550	난쵸 모토키요(南條元續),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勝俊),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마에노 나가야스(前野長康), 사이무라 히로히데(濟村廣英),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벃쇼 요시하루(別所吉治), 나가오카 다다오키(長岡忠興), 기노시타 가츠토시(木下勝俊), 기노시타 도시후사(木下利房), 기노시타 노시토부(木下延俊),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
	11번대	24,960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 오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 기무라 시게코레(木村重茲), 오오다 카즈노리(太田一吉), 야마다 도사부루(山田勝三郎), 하세가와 히데카즈(長谷川秀一), 아오야마 타다모토(青山忠元), 아오키 가즈노리(青木一矩), 호리 히데하루(堀秀治), 호리 치카요시(堀親良), 미조

		구치 히데카즈(溝口秀勝), 무라우에 요시아키(村上義明), 니와 나가시게(丹羽長重)	
12번대	10,000	마에다 도시에(前田利家), 마에다 도시나가(前田利長)	
13번대	6,450	오카모토 시게마사(岡本重政), 히토츠야나기 가유(一柳可遊), 하토리 가즈타다(服部一忠), 미즈노 다다시게(水野忠重), 오다 노부카네(織田信包), 마키무라 세이젠(牧村政玄)	
14번대	13,750	하시바 히데카즈(羽柴秀勝), 이토 모리카게(伊藤盛景), 이바나 사다미치(稻葉貞通), 모리 다다마사(森忠政), 카네모리 가시게(金森可重), 사토 가타마사(佐藤方政)	
15번대	4,100	히데노 다카야키(日根高明), 모리 히데(毛利秀頼), 이시카와 가즈마사(石川數正), 센코쿠 히데히사(仙石秀久), 가토 미즈야스(加藤光泰)	
16번대	12,050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다테 마사무네(佐竹義宣), 우츠노미야 구니즈나(宇都宮國綱), 나스 슈우(那須衆), 사타케 요시노부(佐野了伯), 사토미 요시야스(里見義康), 사다나 마사유키(眞田昌幸), 우에스기 가케카즈(上杉景勝), 모가키 요사미쓰(最上義光), 사노 료하쿠(伊達政宗), 난부 도시나오(南部利直)	
수군	3,980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간 미치나가(菅達長), 구키 오시타가(九鬼嘉隆)	
기타	번외1번	15,000	하시바 히데야스(羽柴秀保)
기타	번외2번	6,200	교코쿠 다카즈구(高極高次), 이시다 미즈나리(石田三成),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오노 시게카즈(小野重勝), 야마자키 이에모리(山崎家盛), 고이데 요시마사(小出吉政)
	특수부대*	29,000	예비대(6,400명), 오다 노부카즈(織田常眞 2,200명), 조충수(1,800명), 기마무사(12,000명), 후방부대(7,600명)
합계	289,840		

* 특수부대는 하타모토(旗本)를 번역한 것이다.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pp.65~73;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附記, 村田書店, p.71.

한국 역사에는 조선에 침략한 일본군 총수를 15만명, 보다 정확하게는 15만 8,700명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일본전사에 1592년 3월 13일 1차 출전병력수에 근거한 것이다(<표 2> 참고). 1차 출전병력은 <표 1>에 나타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와 약간 차이가 있다. <표 2>의 실제 1차 출전병력은 원래의 작전명령서와 비교할 때, 1번대에서 4번대까지는 장수명과 병력수까지 같고, 작전명령서의 5번대와 6번대 병력을 합하여 5번대로 명칭하고 병력수는 100명이 줄어든 2만 5,000명으로 재편하였고, 작전명령서의 7번대를 6번대, 작전명령서의 8번대를 7번대, 작전명령서의 9번대를 8번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한 작전명령서의 일본군 편제 중에서 10번대에 속한 나가오카 다다오키(長岡忠興)의 병력 3,500명과 14번대의 하시바 히데카즈(羽柴秀勝)의 병력 8,000명으로 1만 1,500명의 새로운 9번대를 편성하였다.

<표 2> 임진왜란 1차 출전 일본군

부대	담당지역	병력 수	주요 지휘관
1번대	평안도	18,700	고니시 유키나가 (小西行長), 마츠우라 시게노부 (松浦鎮信), 아리마 하루노부 (有馬晴信), 오무라 요시하키 (大村喜前), 고토 스미하루 (五島純玄), 소오 요시토시 (宗義智)
2번대	함경도	22,800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나베시마 나오시게 (鍋渡直茂), 사가라 요시후사(相良頼房)
3번대	황해도	11,000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오오토모 요시무네 (大友吉統)
4번대	강원도	14,000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시마즈 요시히로 (島津義弘), 다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아키텤키 다네나가(秋月種長), 이토오 스케타카 (伊東祐兵), 시마즈 타다토요(島津忠豊)
5번대	충청도	25,000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도다 카츠타카 (戸田勝隆), 초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 구루지마 미치후사 (來島統總), 하치스카 이에마사 (蜂須賀家政), 이코마 치카마사 (生駒親正)
6번대	전라도	15,700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고바야카와 히데카네 (小早川秀包), 다치바나 무네토라(立花統虎), 다카하시 도소 (高橋統増),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
7번대	경상도	30,000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8번대	경기도	10,000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
9번대	경상도	11,500	나가오카 다다오키(長岡忠興), 하시바 히데카츠 (羽柴秀勝)
수군	해상	4,500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호리노우치 우지요시(堀内氏善), 스키타니 텐사부로(杉谷氏宗), 구와야마 카즈하루(桑山一晴), 구와야마 사다하루(桑山貞晴)
계		163,200	

그러나 일본전사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면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군은 15만 8,700명만이 아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한 1차 출전 일본군은 16만 3,200명이다. 15만 8,700명에 4,500명의 수군을 포함시켜야 한다. 일본전사에는 1차로 육군 15만 8,700명 참전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다음에 수군 4,500명의 지휘관별 병력을 기록하고 있다. 이 1차 출전부대는 고시니 유키나가(小西行長)의 1번대가 1592년 4월 13일 절영도에 도착한 이래, 4월 18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2번대가 부산에 상륙하였고, 5월 초까지 후속부대들이 잇달아 조선에 들어왔다.

<표 3>은 1차 출전 병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선에서 전투를 치른 기록이 있는 일본군 병력이다. 예를 들어, 수군 장수로 기록되어 있는 와카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는 임진왜란 초기 해전뿐만 아니라 용인전투에서 활약하였고, 구키 오시타카(九鬼嘉隆)는 1592년 7월 10일 안골포해전에서 이순신장군에게 패한 사실이 일본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나타나 있는 3,980명의 일본군 수군은 임진왜란 참여가 확실하다.

<표 3> 1차 출전 병력 외 잠전기록이 있는 병력 수

부대	병력 수	주요 지휘관	비고
수군	3,980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간 미치나가(菅達長), 구키 오시타가(九鬼嘉隆)	일본전사 참전 기록
10번대	2,000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	선산 주둔
10번대	850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勝俊)	인동 주둔
10번대	6,000	난쵸 모토키요(南條元續),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마에노 나가야스(前野長康), 사이무라 히로히데(濟村廣英),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일본전사 참전 기록
11번대	7,000	기무라 시게코레(木村重茲), 하세가와 히데카즈(長谷川秀一)	진주대첩 참여
11번대	10,680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 오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 오오다 카즈노리(太田一吉)	일본전사 참전 기록
13번대	2,540	히토츠야나기 가유(一柳可遊)*, 하토리 가즈타다(服部一忠), 미즈노 다다시게(水野忠重)*	일본전사 참전 기록
14번대	1,400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勝俊)	대구 주둔
15번대	1,747	가토 미즈야스(加藤光泰)*	진주대첩 참여
16번대	4,280	다테 마사무네(佐竹義直), 사노 료하쿠(伊達政宗)*	일본전사 참전 기록
번외2번	4,950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일본전사 참전 기록
미상	11,047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 다니 모리토모(谷衛友), 昌原 11家	밀양, 기장, 양산, 창원 주둔
계	56,474		

* 주: 참전병력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잔여병력수가 참전병력수보다 많을 경우 다른 부대로부터 병력을 보급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재조정된 수치임.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pp.65~73 및 pp.257~262.

그리고 일본전사에는 조선의 주요 도시에 어느 장수가 점령하고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진 1번대에서 9번대까지의 장수뿐만 아니라 10번대 이후의 장수들 중에서도 주요 도시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10번대의 난쵸 모토키요(南條元續)은 2,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선산에,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는 850명의 병사와 함께 인동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4번대의 이바나 사다미치(稻葉貞通)는 1,400명의 병사와 대구에 있었다. 또한 초기의 부대편제에서 보이지 않던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는 밀양성,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는 기장성, 다니 모리토모(谷衛友)는 이시카와 사다미치(石川貞通) 및 다케나가 시게토시(竹中重利)와 함께 양산성에 주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일본전사에는 진주대첩의 패배로 인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역사에 엄연하게 진

주대첩에 참전한 것이 확실한 기무라 시게코레(木村重茲), 하세가와 히데카즈(長谷川秀一), 가토 미즈야스(加藤光泰)의 부대를 참전한 것으로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토 미즈야스(加藤光泰)의 참전병력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는 1,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593년 6월에 기록된 잔여 병력수가 1,097로 오히려 늘어났다. 따라서 가토 미즈야스 부대의 사망자 수를 고려하여 다른 부대로부터 병력을 보급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참전병력수를 1,747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1593년 6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 2차로 진주성을 공격하기 전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전병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전체병력을 점호한 결과는 나고야에 주둔하고 있던 거의 모든 병력이 조선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즉 1593년 6월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재편한 일본군 부대에는 1번대에서 9번대까지의 장수뿐만 아니라 일본군 전체 부대의 장수와 휘하 병력이 꼼꼼하게 적혀있다. 즉 <표 1>의 기존 부대 편제에서 10번대에 속해 있던 장수중에서 난초 모토키요(南條元續),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勝俊),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마에노 나가야스(前野長康), 사이무라 히로히데(濟村廣英),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나가오카 다다오키(長岡忠興) 등이 휘하 장병과 함께 새로이 편제되었다. 11번대 장수중에서는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 오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 하세가와 히데카즈(長谷川秀一) 등이 휘하 장병과 함께 편제되었고, 특히 기무라 시게코레는 오오타 반스케(太田伴助), 야마다 도사부로(山田勝藏)라는 새로운 장수와 함께 편제되어 있다. 13번대 장수중에서는 히토츠야나기 가유(一柳可遊)와 하토리 가즈타다(服部一忠) 등 두 장수가 휘하 장병과 함께 새로이 편제되었다. 14번대에서는 대구를 점령하고 있던 이바나 사다미치(稻葉貞通)가 휘하 장병과 함께 새로이 편제되어 있다. 15번대에서는 가토 미즈야스(加藤光泰)가 휘하 병력과 함께 부산성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6번대에서는 사노 료하쿠(伊達政宗)가 휘하 장병과 함께 공격부대로 재편되어 있다. 번외 2번 부대에 속해 있던 장수중에서 이시다 미즈나리(石田三成)는 휘하 부대원과 함께 공격부대로 재편되었고,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는 휘하 병사와 함께 부산성으로 배치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임진왜란에 1차 출정하지는 않았지만 참전이 확실한 일본군 병력은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5만 6,474명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1차 출전 병력 16만 3,200명에 추가 인원 5만 6,474명을 더하면 21만 9,674명이 된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나와 있는 일본군 장수 중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건너간 사실로 확인된 장수의 병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 4>는 일본 구결 등에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위의 21만 9,674명에 포함되지 않은 장수별 부대병력이다.

이 장수들의 병력은 5,000명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임진왜란에 참전이 확인된 일본군수는 총 22만 4,674명이다

<표 4> 구급에서 추가로 확인된 임진왜란 참전 지휘관별 병력

부대	병력 수	지휘관	비고
10번대	3,000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	
11번대	800	아오야마 타다모토(青山忠元)	
13번대	750	마키무라 세이겐(牧村政玄)	
14번대	150	사토 가타마사(佐藤方政)	
16번대	300	우즈노미야 구니즈나(宇都宮國綱)	
계	5,000		

<표 5>는 임진왜란 침공을 위해 준비된 일본군 본대와 예비대, 기타 부대 중에서 일본전사에 참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본군 지휘관별 병력수이다. 총 병력 28만 6,840명 중에서 참전이 확실한 22만 4,674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산술적으로는 이 병력도 9만 6,550명이나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충한 병력이 있는 등의 이유로 동원되었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부대 편제는 되어 있으나 전투기록이 없는 일본군 지휘관별 병력

편제	부대	주요 지휘관	병력(명)
예비대	10번대	기노시타 가즈토시(木下勝俊), 기노시타 도시후사(木下利房), 기노시타 노시토부(木下延俊)	2,200
	11번대	야마다 도사부로(山田勝三郎), 아오키 가즈노리(青木一矩), 호리 히데 하루(堀秀治), 호리 치카요시(堀親良), 미조구치 히데카즈(溝口秀勝), 무라우에 요시아키(村上義明), 니와 나가시게(丹羽長重)	13,300
	12번대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마에다 도시나가(前田利長)	10,000
	13번대	오카모토 시게마사(岡本重政), 오다 노부카네(織田信包)	5,350
	14번대	이토 모리카게(伊藤盛景), 모리 다다마사(森忠政), 카네모리 가시게(金森可重)	4,200
	15번대	히데노 다카야키(日根高明), 모리 히데(毛利秀頼), 이시카와 가즈마사(石川數正), 센코쿠 히데히사(仙石秀久)	3,100
기	16번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다테 마사무네(佐竹義宣), 나스 슈우(那須衆), 사타케 요시노부(佐野の伯), 사토미 요시야스(里見義康), 사다나 마사유키(貞田昌幸), 우에스기 가계카즈(上杉景勝), 모가키 요사미쓰(最上義光), 난부 도시나오(南部利直)	11,250
	번외1번	하시마 히데야스(羽柴秀保)	15,000

타	변외2번	교코쿠 다카츠구(高極高次), 오노 시게카츠(小野重勝), 야마자키 이에모리(山崎家盛), 고이데 요시마사(小出吉政)	3,200
	특수부대*	예비대(6,400명), 오다 노부카츠(織田常眞 2,200명), 조충수(1,800명), 기마무사(12,000명), 후방부대(7,600명)	29,000
합계			96,550

여기에서 참전한 것이 확실히 기록되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병력과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병력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전사 기록이 허술한 데에서 기인한다. 일본전사에서 임진왜란 개전 전에 되어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대편제와 실제 전투를 치른 지휘관별 병력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대편제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으면서 실제 전투에 참여한 지휘관별 병력이 존재한다. 우선 수군에 있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대편제에는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등 4명의 지휘관별 병력이 총 3,980명으로 되어있다. 일단 이 수군이 1차 침략부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등 4명의 지휘관과 4,500명의 수군 병력은 초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 부대편제에는 없으나, 1차 침공부대를 수송한 수군으로 나타나있다.

둘째, 1차 침략부대로 기록되어 있는 1번대에서 9번대 참전병력과 점호병력을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증가된 부대가 발견된다. 고니시 유키나가 지휘한 1번대 총병력은 18,700명이고, 1년 1개월이 지난 1593년 5월 한양성에서 점호할 때는 총병력이 6,629명으로 줄어든 반면, 1593년 6월 2차 진주성전투 시에는 7,415명으로 증가된다. 일본군 2번대 중에서 가토 기요마사가 직접 이끌고 참전한 자신의 병력은 10,000명이었고, 한양성 점호시에는 5,39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에서는 6,79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일본군 4번대 중에서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가 이끌고 참전한 병력은 2,000명이었고, 한양성 점호 시에는 1,425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에는 1,671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과정 중에 일본군의 각 부대는 일본에 있는 예비대 또는 자신이 영주로 있는 곳으로부터 병력을 지속적으로 보급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임진왜란 개전 당시 1차 침략부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에 확실히 건너온 기록이 있는 부대의 문제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는 예비대 또는 기타 부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대의 많은 수가 진주대첩 또는 2차 진주성전투에 참여했다. 더욱이 이 예비대 또는 기타 부대 중에서 참전병력보다 잔여병력이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대가 다수 눈에 띈다. 일본군 11번대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를 따라 참전한 2,500명은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 4,000명으로 병력이 증가됐다. 11번대 오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가 지휘한 1,200명의 참전병력은 한양성 점호 시 1,505명으로 증가됐고,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 1,535명으로 또 다시 증가됐다. 히토츠야나기 가유(一柳可遊)의 병력 400명도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 406명으로 증가됐다. 가토 미츠야스(加藤光泰)를 따라 참전한 1,000명은 한양성 점호 시 1,400명으로 증가됐고,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에는 1,04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노 료하쿠(伊達政宗)의 병력 500명은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 1,258명으로 대폭 증가됐다.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가 지휘한 2,000명의 참전병력은 한양성 점호 시 1,546명으로 감소했으나,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 1,646명으로 증가됐다. 마사타 나가모리(増田長盛)의 병력 1,000명은 한양성 점호 시 1,629명으로 증가됐고,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점호 시 1,62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예비대 또는 기타 부대에 기록되어 있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직접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병력을 보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 뿐만 아니라 2차 진주성 전투 이전 재편된 부대편제에는 초기의 부대편제에 없었던 새로운 장수의 이름도 나타난다. 김해성 방어책임을 맡은 모리 다다마사(毛利重政), 부산성 방어책임을 맡은 모리 히데토모(毛利秀元)와 하야카와 나가마사(早川長政) 뿐만 아니라 진주성 공격부대에 편제되어 있는 구로다 조스이(黒田如水), 4,400명의 병력을 이끄는 성명 미상의 창원11인 등이다.

넷째, 일본군 부대 편제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휘관을 묶어서 편제하였다. 따라서 10번대에서 16번대까지의 예비대와 번외2번 부대에 소속해 있는 각 부대의 장수는 최소한 2명 이상이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렇다면 자신의 친분이 있는 장수가 조선 땅에서 많은 휘하 병사가 치열한 전투로 죽어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병력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10번대에서 16번대까지의 예비대와 기타 부대에 편제되어 있던 번외2번 부대는 대부분 조선에 파병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특수부대에 대한 논의이다. 하타모토(旗本)는 조총수, 기마병, 예비대, 후방부대 등 특수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이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같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 이 부대가 참전하지 않고 일본에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당시 전투에서 파괴력이 높은 조총수와 기마병을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 특수부대를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하면, 번외1번 부대 1만 5,000명이 참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만 남는다. 14번대의 하시바 히데카츠(羽柴秀勝)가 참전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친척관계 하시바 히데야스(羽柴秀保)의 번외1번 부대 역시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이 새로운 장수 이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력이 증가하는 현상은 전쟁 중에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새로운 장수와 병력이 전투에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진왜란

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심복으로 알려져 있는 하세카와 히데카즈(長谷川秀一), 히데요시의 5대로 중 한 명인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등이 참전한 것으로 미루어 특수부대인 하타모토(旗本)가 전투에 참전했을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 부대가 조총수와 기병 중심의 특수부대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1593년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에 있는 자신의 영지에 “1) 군량에 대해서는 5천 석이든 1만 석이든 있는 대로 조선으로 보낼 것, 2) 말먹이인 대두와 된장과 소금 등의 필수품을 가능한 대로 가토의 진영으로 보낼 것, 3) 주문한 조총과 탄약을 급히 조선으로 보낼 것, 4) 병사를 다수 징발할 것, 5) 군량과 무기 조달의 기반이 되는 조세 징수에 대해서는 백성의 미납된 조세를 한 번에 처리하되 보리로라도 징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기록(기타지마, 42)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긴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이러한 일본군의 상황이라면 예비병력을 일본에 주둔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16번대에 편제되어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조선에 출병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침략을 위해 나고야에 보낸 자신의 병력까지 조선에 보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전투기록은 없지만 도쿠가와와 같은 급의 장수인 다테 마사무네(佐竹義直)가 조선에 와서 전투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유추하면 나고야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병력은 조선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공을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준비한 286,840명뿐만 아니라 전투가 치열해짐에 따라 더 많은 병력을 보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이전에 준비한 본대와 예비대, 기타 부대 대부분이 조선에 건너와 전투를 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임진왜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황이 불리해지고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고야에 있던 예비대를 거의 대부분 조선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을 하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건너와 전투를 벌였던 일본군 총 병력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을 위해 준비한 총병력 28만 6,840명일 가능성이 높다.

IV. 임진왜란에서 손실된 일본군수(1592년 4월 - 1593년 6월, 1년 2개월 간)

<표 6>은 일본군 1번대에서 9번대까지 1차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조선의 각 지역에 파견된 일본군 병력수와 파견된 지 1년 2개월 후 제2차 진주성공격을 위해 점호 시 남은 병력 및 병력 손실 현황이다. 임진왜란에 파견된 일본군수와 1년 2개월 후에 남은 일본군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즉 임진왜란 각종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 1592년 4월 1차로 조선에 도착한 15만 8,800명의 일본군은 1년 2개월 후인 1593년 6월 2차 진주성전투를 위해 인원을 점호한 결과 45%에 달하는 7만 1,368명이 사망했거나 큰 부상으로 전투력을 잃고 후송되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초기 평양성이 함락당한 2개월 동안은 일본군이 각종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는 조선 전역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통해 일본군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표 6> 일본군 9개 부대의 사망자수 (1592년 4월 - 1593년 6월 초, 1년 2개월 간)

지역	일본군 부대	정원 (1592년 4월)	잔여 병력수 (1593년 6월)	손실자수 (손실률)
평안도	1번대	18,700	7,415*	11,285 (60.34)
함경도	2번대	22,800	14,432	8,368 (36.70)
황해도	3번대	11,000	5,082	5,918 (53.80)
강원도	4번대	14,000	6,110	7,890 (56.35)
충청도	5번대	25,000	15,694	9,406 (37.47)
전라도	6번대	15,700	8,744	6,956 (44.30)
경상도	7번대*	30,000	16,600	13,400 (44.66)
경기도	8번대	10,000	7,785	2,215 (22.15)
경상도	9번대	11,500	6,314	5,186 (45.09)
합계		158,700	87,432	71,368 (44.94)

주: 1) 일본군 병력 수 중 정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 상의 인원이고, 잔여 병력 수는 조선 내 잔여 병력을 모아 1593년 6월 2차 진주성 공격을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작전명령서 상의 편제 병력 수를 의미한다.

2) 7번대의 파견 병력 수는 모리 데루토모(毛利輝元)의 30,000명이다. 잔여 병력 수는 모리 데루토모의 3,000명에 모리 히데토모(毛利秀元)의 13,600명의 병력을 더한 것이다.

3) 이하의 '사망자'는 사망·실종자 등 점호에 미등재된 인원을 가리킨다. 또한 '사망률'은 병력의 손실비율을 가리킨다.

* 일본군 1번대가 평양성에서 한양성으로 후퇴한 후 1593년 3월 점호한 결과로는 병력이 6,626명이다. 병력 수가 3개월만에 800명 정도가 추가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參謀本部編, 1924, 같은 책.

부산성과 동래성전투를 시작으로 충주 탄금대전투, 한양성 함락, 4차에 걸친 평양성전투 등 임진왜란 중 가장 많은 전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1번대 병력손실률은 60%가 넘는다. 1만 8천여명의 병력 중에서 1만 1천여명이 죽거나 전투력을 잃고 후송된 것이다. 일본군 1번대의 사망률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나타낸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는 제4차 평양성전투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조선군을 압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양성전투에서 명군 장수 이여송이 평

양성전투 과정에서 일본군의 후퇴를 용인한 결과 일본군의 사상자는 많지 않다. 제4차 평양성 전투에서 참획되거나 불에 타 죽은 일본군 수는 많게 잡아도 2,000명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군 1번대는 평양성에서 후퇴한 이후 1593년 6월 진주성전투가 있기 전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군 1번대 9천여명은 1년 2개월 동안 어디에서 어느 전투로 사망한 것일까? 이것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가 조선군과 각종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만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선군이 일본군을 맞아 결사적으로 항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진왜란 중 전투기록이 별로 없는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서도 각각 파견병력의 53.8%, 56.35%, 37.47%가 사망했다. 반면 함경도에서 정문부가 지휘한 조선의병과 북관대첩을 치른바 있는 가토 기요마사의 일본군 2번대는 사망률이 36.70%이다. 황해도와 강원도, 충청도에서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군이 각 도에 파견되어 군대를 모집하고 병량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방어하던 조선군 및 백성의 역습을 받았던 것이다.

<표 7> 경상도지역 일본군 부대의 사망자 (1592년 4월 - 1593년 6월 초, 1년 2개월 간)

부대	주요 지휘관	참전 병력	잔여 병력	사망자 (%)	비고
7번대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30,000	16,600	13,400 (44.66)	경상도
9번대	나가오카 다다오키(長岡忠興)	11,500	6,314	5,186 (45.09)	경상도
11번대	기무라 시게코레(木村重茲)	3,000	1,823	1,177 (39.23)	진주대첩
11번대	하세가와 히데카즈(長谷川秀一)	4,000	2,470	1,530 (38.25)	진주대첩
15번대	가토 미즈야스(加藤光泰)*	1,747	1,097	650 (37.21)	진주대첩
10번대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	2,000	912	1,088 (54.40)	선산
10번대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勝俊)	850	450	400 (47.45)	인동
14번대	이마나 사다미치(稻葉貞通)	1,400	638	762 (54.42)	대구
미상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미상	-	-	밀양
미상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	2,429	1,336	1,093 (45.50)	기장
미상	다니 모리토모(谷衛友)*	618	340	278 (45.50)	양산
미상	昌原 11家*	8,000	4,400	3,600 (45.50)	창원
합계		65,544	36,380	29,164 (44.49)	

* 주: 일1592년 4월에 기록된 가토 미즈야스(加藤光泰)의 참전병력수는 1,000명인 반면, 1593년 6월에 기록된 잔여 병력수가 1,097로 오히려 늘어났다. 따라서 가토 미즈야스 부대의 사망자 수를 고려하여 다른 부대로부터 병력을 보급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참전병력수를 1,747명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 다니 모리토모(谷衛友), 昌原 11家 등이 지휘하던 부대의 참전병력은 경상도 지역 주둔군인 7번대와 9번대 평균 사망률(45%)을 기초로 조정하였다.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pp.65~73 및 pp.257~26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전라도를 점령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금산성에 주로 주둔하던 일본군 6번대 15,700명은 1년 2개월 동안 6,956명, 44.3%의 병력이 손실되었다. 일본군 6번대가 치른 웅치전투, 이치전투, 고경명의 금산성전투, 조헌과 영규의 금산성전투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사망자를 낸 것이다.

또한 경상도는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 한양으로 병량이 이동하는 축선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전투도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 초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일본군은 7번대와 9번대 4만 1,500명이 경상도에 주둔하여 전투를 치렀고, 이 중 1만 8,586명이 사망 또는 후송됐다. 이밖에 일본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경상도 지역 주둔군과 진주대첩 참전 기록을 더하면 일본군의 병력손실수는 훨씬 증가한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도에서 전투를 벌였거나 주둔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일본군은 총 6만 5,544명이며, 이 중에서 손실된 일본군은 총 2만 9,164명으로 44.5%에 이른다. 이것은 경상도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가 발생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고, 일본군의 병참보급 과정에서 조선군과 수많은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육상전투 기록은 임진왜란 중 조선군과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침략군인 일본군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여 양측 모두 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것은 임진왜란에서 초기 2개월 간 일본군이 평양성을 함락할 때까지 일본군이 압도적인 군세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선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한양성 점령 이후 조선 8도의 완전한 점령을 위해 일본군 부대가 중·소규모 단위로 분리되었을 때 지역에 있는 조선군 및 조선백성의 저항을 받아 전국적으로 일본군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1592년 10월 진주대첩으로 인해 일본군의 경상도 축선 상에 있는 보급로에 차질이 발생한 이후 일본군이 병참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조선군과 조선백성의 저항에 의해 일본군의 조선 8도 점령이 계획과 같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은 일본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지휘관별 일본수군의 병력과 사망자이다. 임진왜란 초기 1년 2개월 동안 일본수군 8,480명 중에서 32.3%에 해당하는 3,590명이 사망했다. 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일본수군은 바다에서만 전투한 것도 아니고, 조선수군과의 해전을 일본수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함께 치렀다. 예를 들어, 수군으로 분류되어 있던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6월 5일 용인전투에서 일본군을 지휘하여 조선군에게 패배를 안기기도 했고, 1592년 7월 8일 한산대첩에서 이순신에게 무참하게 패배를 맞보기도 했다.

<표 8> 지휘관별 일본 수군의 사망자수 (1592년 4월 - 1593년 6월 초, 1년 2개월 간)

지휘관	출병 병력 (1592. 4월)	잔여 병력 (1593년 6월)	사망자수 (사망률)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1,500	900	600 (40.00)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750	314	436 (58.13)
간 미치나가 (菅達長)*	230	106	124 (53.91)
구키 오시타가(九鬼嘉隆)*	1,500	834	666 (44.40)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2,000	1,473	527 (26.35)
호리노우치 우지요시(堀内氏善)**	850	574	276 (32.47)
스기타니 덴사부로(杉谷氏宗)**	650	185	465 (71.53)
구와야마 카즈하루(桑山一晴)**	1,000	504	496 (49.60)
구와야마 사다하루(桑山貞晴)**			
합계	8,480	4,890	3,590 (42.33)

주: *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수군으로 편제되어 있던 병력.

**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본전사에 임진왜란 1차 출병 당시 수군으로 기록되어 있던 병력.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附記, 村田書店, p.95.

<표 9>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조선수군과의 해전에서 사망한 일본수군 병력을 추정 한 것이다. 1592년 5월 4일 1차 출동으로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4차례의 출동으로 일본 전함은 26척에 사망자는 3만 1,260명에 달한다. 해전에서는 조선수군에게 일본수군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수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하에 철저히 해전을 피했다. 따라서 이순신의 4차례 출동 이후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는 조선수군과 일본수군 간에 해전이 거의 없었다.

<표 9> 해전에서의 일본 수군 사망자수 (1592년 5월 - 159년 9월, 4개월 간)

해전		종류별 손실 전함			손실 전함	사망자
		대선	중선	소선		
1차 출동 (1592.5.4. - 5. 8.)	옥포해전	16	8	2	26	4,000
	합포해전	4		1	5	840
	적진포해전	9	2		11	1,900
	계	29	10	3	42	6,740
2차 출동 (1592.5.29. - 6. 10.)	사천해전*	5	4	4	13	1,300
	당포해전	9	6	6	21	2,640
	진해해전	4		2	6	880
	당항포해전	9	4	13	26	2,720

	울포해전	4	1		5	900
	계	31	25	25	81	8,440
3차 출동 (1592.7.6. - 7. 11.)	한산대첩*	20	20	19	59	5,900
	안골포해전*	7	7	6	20	2,000
	계	27	27	25	79	7,900
4차 출동 (1592.8.24. - 9. 2.)	장림포해전	4		2	6	880
	몰운대해전	5			5	1,000
	다대포해전	8			8	1,600
	서평포해전	9			9	1,800
	송포해전	2			2	400
	부산해전	4			4	800
	부산진해전	34			34	1,700
	계	56		2	58	8,180
합계		143	62	55	260	31,260

* 일본군 손실 전함 총수만이 기록됨에 따라 대선과 중선, 소선의 비율이 같은 것으로 산정함.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해전에서 손실된 일본군의 전함은 대선의 비율이 높음.

<표 10>은 일본 전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1592년 4월 임진왜란 초기부터 1593년 6월 2차 진주 성전투가 있기 전까지 1년 2개월 동안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일본으로 후송된 일본군 병력을 추정한 것이다. 일본군 1번대에서 9번대까지의 기록은 일본전사의 기록이다. 7번대와 9번대를 제외한 경상도 주둔 부대는 일본 전사에 명시된 경상도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과 진주대첩에 참여한 부대의 사망자이다. 일본 수군 사망자는 일본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본 수군의 사망자만을 계산한 것이다. 일본군은 육군과 수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해전에서 사망한 일본군은 수군만이 아니라 육군까지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표 10> 추정 가능한 전체 일본군 사망자 (1592년 4월 - 1593년 6월, 1년 2개월 간)

부대 및 지휘관		참전 병력	잔여 병력	사망자	부대
1번대 - 9번대		158,700	87,432	71,268	
7·9번대를 제외한 경상도 주둔 부대		24,044	13,466	10,578	
수군		8,480	4,890	3,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작전명령서	난초 모토키요(南條元續)	1,500	803	697	10번대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400	201	199	10번대
	마에노 나가야스(前野長康)	2,000	922	1,078	10번대

확인된 참전군	사이무라 히로히데(濟村廣英)	800	380	420	10번대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800	383	417	10번대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500	313	187	10번대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	7,270* 2,500	4,000	3,270	11번대
	오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	2,800* 1,200	1,535	1,265	11번대
	오오다 카즈노리(太田一吉)	610	336**	274	11번대
	히토츠야나기 가유(一柳可遊)	740* 400	406	334	13번대
	하토리 가즈타다(服部一忠)	800	693	107	13번대
	미즈노 다다시게(水野忠重)	1,000	550**	450	13번대
	다테 마사무네(佐竹義宜)	2,000	1,100**	900	16번대
	사노 료하쿠(伊達政宗)	2,280* 500	1,258	1,022	16번대
	이시다 미즈나리(石田三成)	2,000	1,646	354	번외2번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2,950* 1,000	1,624	1,326	번외2번
	소계	28,450	16,150	12,300	
구글에서 확인된 참전군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	3,000	1,350**	1,650	10번대
	아오야마 타다모토(青山忠元)	800	360**	440	11번대
	마키무라 세이젠(牧村政玄)	750	338**	412	13번대
	사토 가타마사(佐藤方政)	150	67**	83	14번대
	우츠노미야 구니즈나(宇都宮國綱)	300	135**	165	16번대
	소계	5,000	2,250	2,750	
합계	224,774	124,188	100,586		

* 일본군 잔여병력으로 추정된 참전병력

** 일본군 참전병력으로 추정된 잔여병력. 참전병력과 잔여병력은 1번대-9번대 일본군의 평균 사망률 45%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pp.65~73 및 pp.257~262.

그리고 일본전사의 기록에 의해 참전이 확실하지만 이상의 계산에서 제외된 일본군 예비대의 지휘관별 병력손실수를 계산했다. 단, 참전병력보다 잔여병력이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 오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 사노 료하쿠(伊達政宗),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등은 잔여병력을 기준으로 참전병력과 병력손실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참전병력과 사망자는 일본군 1번대에서 9번대의 평균사망률 45%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오오다 카즈노리(太田一吉), 미즈노 다다시게(水野忠重), 다테 마사무네(佐竹義宜) 등은 참전병력만 기록되어 있는 까닭에 잔여병력과 사망자를 평균사망률 45%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는 있으나 임진왜란에 참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수에 대해서 일본 구급로 참전여부를 확인한 결과 5명의 장수의 참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병력을 참전한 것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들 병력 역시 일본군 평균사망률 45%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전사에 참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일본군 사망자를 위와 같이 계산했을 때 일본군은 22만 4,774명이 참전하였고, 임진왜란 초기 1년 2개월만에 10만 586명이 사망 또는 후송되었다. 임진왜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일본으로 후송된 병력은 실제 많지 않을 것이므로 사망 또는 후송자는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3만 8,000명의 일본군이 사망(전투 1회당 1,520명의 사망자 발생, 25회 전투)한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즉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조선에서 사망한 일본군 총수는 13만 8,586명으로 참전병력 22만 4,774명의 61.65%이다.

<표 11> 일본군 사망자 (1592년 4월 - 1593년 6월 말, 1년 3개월 간)

일본군	병력수	사망률
임진왜란 참전병력	224,774	-
2차 진주성전투 이전 사망자	100,586	44.74
2차 진주성전투 사망자	38,000	16.91
총 사망자	138,586	61.65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나타난 모든 병력이 임진왜란 각종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있는 정원을 다음 해인 1593년 3월 한양성에서 인원을 점검한 병력수와 1593년 6월 2차 진주성전투 이전에 점검한 병력수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력이 오히려 증가한 부대가 다수 보인다. 이것은 임진왜란 전투가 치열해짐에 따라 나고야에 주둔하고 있던 예비병력 대부분이 각 부대에 추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에 있는 병력 모두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임진왜란에 참전한 병력은 28만 6,840명이 고, 살아서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군은 8만 3,578명이 고 사망자는 20만 3,262명에 이른다.

<표 12> 일본군 부대 병력수의 변동

지휘관 명	일본군 부대	정원 (1592. 4.)	잔여 병력 (1593. 3.)	잔여 병력 (1593. 6.)	증원 병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번대	18,700	6,629	7,415	786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2번대	10,000	5,492	6,790	1,298
나베시마 나오시게(鍋渡直茂)	2번대	12,000	7,644	7,642	-2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4번대	2,000	1,425	1,671	246
이토오 스케타카(伊東祐兵)	4번대		597	706	109
시마즈 타다토요(島津忠豊)	4번대		293	476	183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	11번대	2,500		4,000	1,500
오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	11번대	1,200	1,505	1,535	302
히토츠야나기 가유(一柳可遊)	13번대	400		406	6
사노 료하쿠(伊達政宗)	16번대	500		1,258	758
이시다 미즈나리(石田三成)	번외2	2,000	1,546	1,646	100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附記, 村田書店.

V. 참전 일본군 병력수 및 손실자수의 의미

여기에서는 임진왜란 참전 일본군 병력수 및 손실자수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임진왜란 전황의 변화에 따라 임진왜란을 4기로 나누어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1592년 4월 임진왜란 개전부터 같은 해 6월 평양성함락까지 조선군이 일본군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시기를 1기, 1592년 6월부터 이듬 해 10월 제1차 진주성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조선군과 의병이 일본군에 대항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2기, 1592년 10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진주대첩 이후 조선군 및 의병이 승기를 잡고 일본군에 압박했던 시기를 3기, 1593년 6월부터 임진왜란 종전까지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일본군이 전투력을 잃고 명군과 휴전을 모색하던 시기를 4기로 구분하였다.

<표 13>은 1592년 4월 13일 부산성전투에서 1593년 6월 14일 1차 평양성전투까지 2개월 동안 일본군이 각종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임진왜란 제1기의 전투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차례의 대규모 육상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승리하였고, 해유령전투, 정암진전투, 무계전투와 같은 소규모 전투에서 조선군 및 의병이 승리했을 뿐이다. 육지전투의 영향으로 이 기간 중 일본군은 부산성에서 한양성, 평양성으로 이어지는 축선상에 있는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고, 한양성에서 함경북도로 이어지는 축선상의 주요 도시도 점령하였다.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승리를 하였다. 해전이 육상 전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임진왜란 초기 2개월 동안의 제1기는 일본군이 전투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임진왜란 제1기(1592. 4. - 1592. 6) 주요전투 내용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공격군 및 전투 결과
부산성전투	4. 14	800	18,7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동래성전투	4. 15	1,000	18,7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밀양성전투	4. 18	500	18,7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상주전투	4. 25	800	18,7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탄금대전투	4. 28	20,000	18,7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옥포해전	5. 7	3,700	4,00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합포해전	5. 7	3,700	84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적진포해전	5. 8	3,700	2,10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혜유령전투	5. 16	500	70	일본군 공격, 조선군 승리
임진강전투	5. 18	13,000	22,0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정암진전투	5. 24	200	2,000	일본군 공격, 조선의병 승리
사천해전	5. 29	3,970	1,30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당포해전	6. 2	3,970	2,64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진해해전	6. 5	7,470	88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당항포해전	6. 5	7,470	2,72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울포해전	6. 7	7,470	90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용인전투	6. 5 - 6	80,000	1,6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무계전투	6. 6	50	30	조선의병 공격, 조선의병 승리
1차 평양성전투	6. 14	4,600	23,7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표 14>는 임진왜란 제2기인 1592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정리한 것이다.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와 같이 해전에서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육상전투에서는 초기 전투와 양상이 달리 전개됐다. 초기 전투에서는 대부분의 육상전투에서 일본군이 공격하여 승리하였던 반면, 제2기 총 17회의 주요 육상전투에서는 일본군 공격이 4회인 반면, 조선군 및 의병의 공격이 13회로 공세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또한 전투 결과에서도 일본군 승리가 6회인 반면, 무승부 3회, 조선군 및 의병의 승리는 8회였다. 즉 임진왜란일 발발한지 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전투에 있어서 조선군이 주도권을 쥐고 전투를 치렀고, 전투결과도 조선군이 우세했다. 특히 이 시기에 일본군은 조선 8도 전체를 장악하고 조선백성으로부터 병력과 병량을 모집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으로 분산되어 조선 전역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때이다. 조선 8도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일본군에 대해 조선군 및 백성이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전투의 양상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다에서는 조선수군이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한 시기이기도 하다.

<표 14> 임진왜란 제2기(1592. 6. - 1592. 10) 주요전투 내용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공격군 및 전투 결과
웅치전투	7. 8	2,000	3,0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이치전투	7. 8	3,000	3,000	일본군 공격, 무승부
1차 금산성전투	7. 10	7,000	13,000	조선의병 공격, 일본군 승리
의령전투	7월	4,000	2,000	조선의병 공격, 조선의병 승리
우척현전투	7월	4,000	3,00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한산대첩	7. 8	8,260	10,10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안골포해전	7.10	8,260	5,94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2차 평양성전투	7. 17	6,000	18,700	조선군 공격, 일본군 승리
영천성전투	7.24-27	3,500	3,000	조선의병 공격, 조선의병 승리
3차 평양성전투	8. 1	20,000	18,700	조선군 공격, 일본군 승리
청주성전투	8. 1	1,000	1,000	조선의병 공격, 조선의병 승리
2차 금산성전투	8. 18	700	10,000	조선의병 공격, 일본군 승리
1차 성주성전투	8. 21	20,000	20,000	조선의병 공격, 무승부
영원산성전투	8. 23	1,000	3,000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연안성전투	9.	미상	3,000	일본군 공격, 조선군 승리
2차 경주성전투	8월	미상	미상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북관대첩	9.16-10.	3,000	2,000	조선의병 공격, 조선의병 승리
2차 성주성전투	9. 11	20,000	20,000	조선의병 공격, 무승부
창원전투	9월	1,000	1,000	조선군 공격, 조선군 승리

임진왜란 제3기인 1592년 10월 진주대첩이후부터 1593년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주요전투 상황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이 공격하기 위해 일본 수군을 찾아다녔지만 철저하게 일본 수군이 전투를 피하여 주요 해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육상전투에서는 진주대첩을 계기로 조선군이 일본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제 3기 총 6회의 주요 육상전투에서는 일본군 공격이 3회, 조선군 및 조명연합군의 공격이 3회로 공세의 주도권은 팽팽하였지만, 전투 결과에서는 조선군 및 의병이 5회 승리했고, 일본군의 승리는 명군을 대상으로 한 벽제관전투 1회에 그친다. 특히 이 시기의 치러진 6회의 전투는 모두 대규모 전투로 사상자 규모가 컸고, 그에 따라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따라서 진주대첩 이후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일본군의 지휘관회의를 한양성에서 개최했고, 여기에서 일본군의 후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표 15〉 임진왜란 제3기(1592. 10. - 1593. 6.) 주요전투 내용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조선군(명군) 병력	일본군 병력	공격군 및 전투 결과
진주대첩	10.5-10	3,800	30,000	일본군 공격, 조선군 승리
길주성전투	10. 25	3,000	1,000	조선의병 공격, 조선의병 승리
독성산성전투	12. 11	10,000	20,000	일본군 공격, 조선군 승리
4차 평양성전투	6-9	43,000	18,700	조명연합군 공격, 승리
벽계관전투	27	2,000	15,000	명군 공격, 일본군 승리
행주대첩	2. 12	2,300	20,000	일본군 공격, 조선군 승리

그리고 이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획한 전쟁목표는 수정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경상도 남부 해안지역으로 후퇴하였다. 즉 임진왜란 제3기에는 진주대첩 이후 일본군 보급로의 차단, 주요 전투에서의 일본군 패배, 조선군의 전방위적 공세 등으로 인한 일본군의 사상자 증가와 전투력 상실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초기 전쟁목표를 포기하고 새로운 전쟁목표를 세우게 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과 명군과의 회의를 통해 명군을 한강 이북에 묶어두고, 진주성을 점령한 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조선 남부지역을 지배하겠다는 것으로 전쟁목표까지 변경했다.

임진왜란 제4기,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1596년 6월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철수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조선군과 일본군 간에는 제2차 진주성전투 이외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해전도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을 철저히 피해 다녔기 때문에 전투가 없었다. 2차 진주성전투에서 일본군은 진주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다. 제2차 진주성전투로 인해 5,800명의 조선군과 의병은 전원 사망했지만, 일본군은 9일 동안 전투를 치러야했기 때문에 3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야했다. 그 결과 일본군은 전투력의 약화로 인해 구례와 남원까지 진출한 일본군이 결국에는 부산 해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선군과 일본군 간에 전투다운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고, 명군과 일본군은 서로 병력을 본국으로 후송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투가 종결된 것이다.

〈표 16〉 임진왜란 제4기(1593. 6. - 1596. 5.) 주요전투 내용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공격군, 전투 결과
2차 진주성전투	6.15-29	5,800	92,972	일본군 공격, 조선군 옥쇄
구례전투	7. 2	미상	미상	일본군 공격, 일본군 승리
남원성전투	7. 7	3,000	3,000	쌍방 공격, 무승부

결론적으로 임진왜란을 4기로 구분하면 일본군이 전투에서 우세한 시기는 제1기뿐이고, 제2기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본군이 방어했던 시기이며, 제3기와 제4기는 조선군이 전투에서 우세했던 시기이다. 일본군은 임진왜란 초기 2개월간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듯 했지만 조선을 실질적으로 점령한 적은 전혀 없었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2개월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조선군과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일본군을 공격했고,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6개월 이후부터는 일본군은 수세에 몰렸을 뿐만 아니라 보급로의 차단에 의해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 일본군은 철수의 명분을 찾기 위해 명군과 강화를 논의했고, 벽제관전투와 행주대첩, 제2차 진주성전투 등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명군과 조선군에 대한 공격은 강화협상을 유리하게 주도하기 위한 전술적 행위로 이해된다. 전반적인 전쟁과정에서 현실적 득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진출과 후퇴를 결정하는 일본군의 행태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군은 4차 평양성전투 한 차례의 패전으로 한양성으로 빠르게 후퇴했고, 이후 대규모 전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까지 후퇴했으며,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그들이 승전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로 진출하지 못하고 부산지역으로 후퇴하여 곧바로 강화협상에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대를 철수하였다. 이 이유는 조선군과 백성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일본군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보급로가 차단됨에 따라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임진왜란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임진왜란은 전투 면에서도 조선군이 일본군에 승리한 전쟁이며, 임진왜란 초기부터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전쟁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실패한 전쟁인 것이다.

<표 17> 조선군, 조선의병, 명군의 대일본군 동원 병력 요약

전투 주체	조선측 병력	일본군 병력	전투 횟수	비고
조선군 대 일본군	228,270	292,620	31회	
조선군·의병 대 일본군	9,800	95,972	2회	
조선 의병 대 일본군	62,450	74,030	11회	
명군 대 일본군	48,000	36,700	3회	조·명연합군
계	348,520	499,322	47회	

한편, <표 17>은 임진왜란 시 전투를 치른 주체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일본군과 가장 많이 전투를 치른 주체는 조선관군이다. 조선관군과 일본군 양측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명군은 일본군과 3회의 전투만을 치렀고, 동원된 병력수도 가장 적었다. 즉 임진왜란을 극복한 주인공은 조선관군이며, 의병이 중요한 시기에 관군에 큰 도움을 주었고, 명군은 4차 평양성전투 이외에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임진왜란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군이 참전했으며,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사망하거나 전투력을 잃고 후송되었는지를 알려준 새로운 증거로 인해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인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역사가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형성된 현재 한국인의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인식은 증거를 통해 해석된 것과 크게 다르다. 즉 한국인의 역사인식은 새로운 증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진왜란 중 일본군은 최소 22만 4천명이 넘는 병력이 참전했고, 이들 중 약 14만명이 조선 땅에서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일본으로 후송됐다. 60%가 넘는 참전 일본군이 손실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군과 백성이 임진왜란 개전 초부터 치열하게 일본군에 대항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등 한강 이북에 진주한 일본군은 전투 발발 7개월 내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특히 치열한 전투가 발생한 기록이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만 일본군의 희생이 크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황해도와 강원도와 같이 전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도 일본군의 희생이 거의 대등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 8도 전역에서 조선군과 백성이 치열하게 침략군과 싸워 이겼으며, 조선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일본군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군이 임진왜란 각종 전투를 지배했던 시기는 초기 2개월뿐이었다. 일본군이 초기 전투에서 승리했던 요인은 100년이라는 긴 전국시대 동안 일본군은 국내에서 계속 전투를 치렀고, 일본이 통일되면서 전투로 달린 28만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이를 받혀줄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군은 임진왜란 초기 패전을 경험하면서 전투에 단련되었고, 군대가 조직화되면서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일본군을 궁지에 몰았다. 전투가 지속되면서 일본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자 후퇴의 명분을 찾게 되었고, 명군의 참전을 계기로 일본군은 명군과 강화를 맺으면서 결국 후퇴한 것이다.

셋째, 명군이 조선을 위해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군은 일본군과 단 두 차례의 대규모 전투를 치렀을 뿐이다. 제4차 평양성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명군은 일본군의 퇴로를 보장함으로써 자국 병사의 희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고, 벽제관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한 명군은 그 이후 일본군과 전투를 피하며 화의를 구하려 했다. 일본군은 조선군과 백성의 공격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고, 명군은 강력한 일본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기에는 병사들의 희생이 클 것을 우려하여 화의로써 전쟁을 끝내려는 실리를 찾은 것이다. 명군과 일본군은 화의를

반대하는 선조를 배제한 채 그들만의 화의를 진행시켰고, 화의가 맺어지기도 전에 명군과 일본군은 빠르게 병력을 자국으로 후퇴시킴으로써 임진왜란이 종결된 것이다. 즉 조선 정부는 왜적의 침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이에 따라 임진왜란을 조선 정부와 백성의 힘으로 왜적을 물리친 것이다.

넷째, 임진왜란 각종 전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가장 많이 치른 당사자는 조선관군이다. 진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대첩 등 임진왜란 3대첩을 이끈 주역은 조선관군이었으며, 이외에도 대규모 전투를 치르면서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한 주역은 대부분 관군이였다. 임진왜란을 극복함에 있어서 조선 의병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의병 대장은 전직 관료였으며, 이들 또한 국왕으로부터 관직을 다시 제수 받았고, 관으로부터 군대와 무기, 병량을 지원받아 대규모화된 군대로 조직화되어 전투에 임했다. 실질적으로 당시 관군과 의병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순신장군으로 상징되는 조선 수군이 강력하기는 했지만 수군에 의해서만 전라도와 낙동강 서쪽의 경상우도가 지켜진 것은 아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진격한 일본군을 조선관군과 의병이 웅치전투, 이치전투, 금산성전투로 막았고, 경상도를 통해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은 광재우, 김면, 정인홍의 의병부대의 전투와 김시민의 진주대첩에 의해 근본적으로 격퇴됐다.

이상과 같이 증거에 기반한 사실은 큰 위력이 있다. 임진왜란에서 각종 전투에서의 패배, 국왕과 관료의 무능 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위기에서 조상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 힘을 썼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억으로 전환하게 한다.

본 연구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철저한 증거가 부족할 때 조선이라는 국가와 정부가 얼마나 왜곡된 인식으로 각인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거기반 정부 또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문(2010). 「진주대첩을 통해서 본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 공계순·서인해(2006).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77-102.
- 국조보감. (1909).
- 김강식(2010). 「충렬록에 나타난 癸巳晋州戰 전사자의 추승과정과 의미」,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328~329쪽.
- 김명수(2007).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증거를 산출하는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원평가연구원.
- 김명준(2010). 「임진년 진주대첩과 학봉 김성일」, 『경남문화 세미나 발표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67-320쪽.
- 김성일(1649). 「진주성(晉州城)을 지켜 승첩(勝捷)한 것을 치계(馳啓)하는 서장」, 『학봉집』, 제3권 狀).
- 김준형(1995). 「진주 주변에서의 왜적방어와 의병활동: 제1차 진주성 전투 이전」, 『경남문화연구』, 제17권,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89~134쪽.
- 김한균(2012). 증거기반 치안정책과 경찰기능의 발전동향. 행사정책연구소 121: 5-10.
- 루이스 프로이스(2010). 정성화·양윤선 옮김. 임진년의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살림출판사.
- 박성식(2010). 「1, 2차 진주성 전투의 실상과 그 영향」,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 박성식(1992). 「진주성전투」, 『경남문화연구』, 제14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273-316쪽.
- 박용국(2011). 「임진왜란기 진주지역 남명학파의 의병활동」, 『남명학』, 제16집, 319-360쪽.
- 박익환(2010). 「임진년 진주대첩에서의 학봉과 김시민의 공업」,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1997). 「壬辰倭亂과 晋州城 戰鬪」, 『南冥學研究』, 제7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37-69쪽.
-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2008).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 안방준(1864). 「진주서사」, 『은봉전서(隱峯全書) 권7.

- 양재숙(2012). 『임진왜란은 조선이 이긴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의 상식을 되짚다』, 도서출판 가람 기획.
- 윤인식(2013). 역사추적 임진왜란. 북랩.
- 윤주철(2012). 증거기반정부 관점에서 본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발표 논문집 : 1-18.
- 오중록(2010). 「진주성 전투의 지휘체계와 전투과정」,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 오철호(2008). 행정학 연구결과 활용의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42(4): 7-33.
- 오현무(1994). 「전투상황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 『軍事發展』, 제72호, 陸軍教育司令部, 56~57쪽.
- 유성룡(2012). 김홍식 옮김. 『징비록』. 서해문집.
- 윤건(2012). 증거기반 공공기관 개혁정책 수행을 위한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발표논문집 : 1-30.
- 윤영근(2012). 증거기반 정책과 정책품질관리제도. 한국행정학회 하계발표논문집 : 1-26.
- 이건(2012). 증거기반 정책과정에서 서베이방법론의 역할 탐색. 한국행정학회 하계발표논문집 : 1-21.
- 이궁익(1966). 민족문화추진회 역. 연려실기술.
- 이상훈(2010). 「임진왜란 시 국내외 정세와 진주대첩의 배경」,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 이순신(2010). 노승석 옮김. 난중일기. 민음사.
- 이윤호(2012). 증거기반정부 형성을 위한 공공기록관리
- 이혜인(2012). 증거기반정부 관점에서의 합리적 갈등관리. 한국행정학회 하계발표논문집 : 1-18.
- 조경남(1593). 『난중잡록[亂中雜錄]』.
-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1592) 7월 1일(무오) 6번째기사, 「왜병이 거창을 침범하자 의병장 김면이 격퇴시키다」.
- 『선조실록』 권27, 25년(1592) 6월 28일(병진) 4번째기사,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이 일어난 일과 경상도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고하다」
- 『선조실록』 권28, 25년(1592) 7월 26일(계미) 9번째기사, 「김시민·이상신·김홍미·이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실록』 권40, 26년(1593) 7월 10일(임술) 9번째기사, 「창의사 김천일이 진주성의 방어 준비

상황을 보고하다」.

『선조실록』 권40, 26년(1593) 7월 16일 5번째기사, 「6월 29일 함락된 진주성 싸움의 자세한 경과」.

『선조실록』 권40, 26년(1593) 7월 5일(정사) 2번째 기사, 「호남으로 진격하려는 왜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지승중(2010). 「16세기말 진주성 전투의 배경과 전투상황」,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參謀本部編,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1924.

최관(2003). 「일본에서의 김시민 장군」, 제2회 충무공 김시민장군 선양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최영희(1997).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남명학연구』, 제7집, 1~14쪽.

최용성(1996). 전장환경 및 전장심리 측면에서 본 현리전투」, 『3사논문집』, 육군제3사관학교, 135~138쪽.

최효식(2010). 「1, 2차 진주성 전투의 전황과 승패의 요인」,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허선도(1985). 「임진왜란론: 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동양학』, 15권 1호, 457-472쪽.

Campbell, S., Benita, S., Coates, E., Davies, P., & Penn, G. (2007). Analysis for policy: evidence-based policy in practice. London: Government Social Research Unit.

Davies, 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presented at the 4th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C.

Julnes, Goerge. (2007). Promoting Evidence-informed Governance.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4): 550-573.

Nutley, S., Walter, I., & Davies, H.T.O. (2003). From knowing to doing: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evidence-into-practice agenda. Evaluation, 9(2): 125-148.

Sanderson, I. (2002). Evaluation, policy learning and evidence-based policy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80(1): 1-22.

Solesbury, W. (2001). Evidence based Policy: Where it come and where it's going. ESRC UK Center for Evidence Based Policy and Practice; Working Paper 1.

박희봉(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조직, 행정 문화 및 사회자본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2009), 「좋은 정부, 나쁜 정부」(2013),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2014), 논문으로는 “정부신뢰의 요인: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2013)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의 필요성: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오류와 진실을 바탕으로”(2014) “스칸디나비아 3개국 및 동아시아 3개국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2014)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경력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09)을 맡은 바 있다.

<논문접수일:2014년 10월 31일/게재확정일:2014년 12월 2일>

www.kci.go.kr